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 파트너십' 성과 공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오후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파트너십' 행사를 열어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등기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 일경험드림 참여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우수사례 발표 ▲소통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이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지금까지 7940명의 청년과 514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올 하반기에도 총 400명의 청년이 244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기업 수요에 맞춰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자기주도형(주 25시간, 5개월)으로 참여유형을 다양화해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성과 보고에 이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알프스, ㈜무등기업, 조선대학교 등 일경험드림 참여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7년부터 참여해 그

2017년 이후 청년 7940명·기업 5147곳 참여... 일자리 진입 디딤돌 한국전력거래소·한국알프스 등 우수사례 소개... 참여기업 긍정 평가



동안 203명의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알프스는 2023년부터 91명의 청년에게 생산기술 공정,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지원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청년의 열정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채용 기회로도 이어져 유익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의 성장을 함께하며 기업도 보람을 느낀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진 '드림파트너십 소통'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미래 성장 비전'을 밝히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

은 광주의 미래 전략 사업인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미래차 국가산단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소공몰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 융복합 기업 총 1000개사를 집적화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국가 정책으로 전국화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청년의 성장이 곧 광주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하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AI 2단계 사업, 미래차산단 등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 성장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광양경제자청, 유럽서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총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를 방문해 글로벌 선도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협력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물류, 스마트 모빌리티, AI, 첨단기계 분야를 선도하는 유럽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광양경제자청은 현지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에는 글로벌 물류기업인 게브뤼더 바이스,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개발하는 캡슈 트래픽, 광학기술과 반도체 조명 분야의 선두주자인

AMS 오스람, 전기차 구동 시스템과 차량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한 AVL, 1만2천여 회원사를 보유한 뮌헨상공회의소, AI 솔루션 전문기업 모션스클라우드, 플라스틱 소재 혼합기 분야의 강자인 리스트 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돼 있다.

광양경제자청은 각 기업과의 회동에서 한국 내 투자 가능성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리스트 테크놀로지는 이미 한국 내에 아시아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후속 투자 가능성도 크다.

구중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유럽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광양만권의 미래 전략산업과 접점이 많다"며 "이번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광양만권을 동북아 최고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 혁신제품 '테크니컬 투어' 열어 창업기업-수요기관-투자자 연결해준다

보건환경연구원서 '무전력 조리매연 저감장치' 실증 지원 제품 작동원리·성능 직접 확인... 학교 급식시장 진출 준비

광주시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주방에서 조리할 때 매연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혁신기술 제품인 '이에스지(ESG) 조리매연 저감장치'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창업기업인 에어데이터랩㈜이 개발한 '이에스지(ESG) 조리매연 저감장치'의 실증 현장을 소개하는 '테크니컬 투어'를 지난 11일 오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했다.

'테크니컬 투어'는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이 단순 실증에 그치지 않고 매출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제품 수요기관-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실증 현장에는 이동혁 에어데이터랩 대표와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시교육청, 투자자 등이 참석해 실증 제

품의 작동 원리와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

에어데이터랩의 '이에스지(ESG) 조리매연 저감장치'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전력 방식으로 ▲활성탄 ▲프리카필터 ▲카본필터 단계를 거쳐 조리할 때 발생하는 매연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모듈형 설계로 급식시설 규모에 맞춰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이 없어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실증에 참여한 보건환경연구원 급식실 조리원은 "이전에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조리실로 많이 유입됐는데 장치 설치 후에는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경쟁력은 우수하다"면서 "연간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겠다"고 평가했다.



한 투자자는 "이 장치는 급식실 주변의 외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어데이터랩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증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급식시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

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과 테크니컬 투어를 통해 우수한 혁신기술이 시민 생활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개 기업을 선정, 제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종자관리소, 맥류 원종 전량 종자검사 합격

철저한 포장 관리·새로운 농작업 도입 등 성과

전라남도종자관리소는 2025년산 보리·밀 원종에 대한 종자산업법상 포장검사와 종자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자 생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다.

올해 종자관리소는 새싹보리, 흰쌀보리, 누리찰보리, 호품보리, 새금강밀, 백강밀 6개 품종에서 총 11만 5천679kg을 생산해 목표치(7만 4천923kg)의 154.4%를 달성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율과 비교해도 127.1% 증가한 수치다.

국가위탁사무로 추진한 종자 생산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합격을 위해선 정립률 99% 이상, 발아율 85%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1천립 중 1립의 이품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잡초 종자는 없어야 하며, 병해, 수분 함량 등 모든 항목에서 법정 규격을 만족해야만 합격된다.

이번에 생산된 보리·밀 원종은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해 전량 합격

판정을 받으므로써, 내년도 보급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종자관리소는 그동안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영농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잡초 제거 방식 도입, 선제적 병해충 방제, 다른 품종 제거를 위한 밀도 있는 농작업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높게 발생한 고질적인 도복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정선 과정 등 세밀한 관리체계를 추진했다.

특히 이상기후로 작황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쓰러짐 방지를 위한 답압, 선제적 도복경감제 처리, 병해충 방제 등 차별 없는 종자생산을 위한 노력들이 이번 맥류 원종 전량 종자검사 합격 성과로 이어졌다.

김재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이형주 및 잡초 제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위탁사무인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